

戲曲

戲 叶 4 (單氣)

金 光 根

하 하

하 마 나

金 兌 根

하 . 1 0 7 0 2 2

하 . 하 는 드 시

나 오 드 사 람 들

하 마 나

하 들 들 수 장

손자 상준

손녀 상순

상숙

식모 옥이

손부 장씨

어른받

상숙의 친구 A

B

C

이 는 부 자 집 의 르 화 르 은 응 산 실 .  
 갖 출 것 이 대 갖 추 어 건 그 르 수 스 러 우  
 에 비 해 사 정 사 적 인 것 이 하 누 르 갖  
 음 이 하 원 라 .  
 으 른 르 권 뒤 쪽 에 으 어 , 알 으 르 는 안 권  
 르 등 부 그 , 외 권 에 약 간 의 를 를 가 권  
 바 같 대 문 으 르 를 화 지 된 라 . 들 음  
 뒤 권 에 늘 은 관 장 , 그 위 에 도 록 관 이  
 향 살 이 현 상 갖 다 . 달 강 살 이 가 지 만  
 양 상 하 게 죽 어 가 는 정 원 수 몇 구 루 .

막이 오르면 잠잠한 무대 가운데  
 침이, 먼 곳을 하얗게 바라보고  
 앉는 할머니와 모습만 화려하게 나타  
 난다. 낮게 깔리는 전위음악에 걸쭉  
 시 박람회 소리, 물소리, 배부속 소리, "엄  
 메—" 황소의 물음소리가 들려온다.  
 할머니와 모습이 그대로 박아진다.  
 조음 뒤에 무대가 응명 < 濛明 > 으르  
 댕아리는 동시에 음악이 사라진다.

그 화사스런 아침에 어디로 가  
 한 발 한 걸음의 발자취도  
 없는데, 부 - 기 하 삼 을 노 수 고 서  
무 를 을 집 고 원 의 노 수, 만 지 말 의 를 집  
어 를 고 청 소 를 하 기 시 작 하 고, 관 장  
소 화 의 먼 지 를 말 라 고 대 의 부 위 무 장  
말 의 외 수 복 의 생 인 말 바 부 호 를 신 무  
지 의 주 어 모 우 라, 이 러 라 부 이 무 로 될  
세 사 나 오 라 지 겨 본 다,  
부 의 발 자 취, 무 엇 하 지 는 ?

1. 말 머 4 < 불 라 들 어 분 라 >  
 2. 우 이 < 결 의 와 다 > 그 결 보 아 서 말  
하 우.  
 3. 말 머 4 응 ... .. 구 판 베 리 기 가 아 개 바 와 사  
우 이 그 개 지 것 우 가 아 개 우 우. 양  
담 배 가 몇 상 관 내 있 는 데 ... ..  
 4. 말 머 4 순 에 가 만 이 런 등 가 리 담 배 로  
문 외 우 다 라.  
 5. 우 이 보 아 서 누 를 주 시 는 가 르. 그 결 지  
예 ?

할 때 < 사며 > 누안테 죽간 말그 < 먼  
 < 웃을 바라보다 > 후 - 한숨을 쉬다 <  
 유 이 양 이 모았르 ?  
 할 때 나 보우기 반 보우면 뭐하노 . . . . .  
 그 주딩 대강 놀라구 ~~들~~가사 아  
 춤 준비 누 해라 .  
 유 이 응절실 청소하러 나왔는걸은 .  
 할 때 나 의게는 내가 할것까네 안에 일  
 이 나 해라 .  
 유 이 할 때 나 일 시킨라고 야각 갖게



인 .  
 할 마 4 나 가 알 의 수 하 부 마 , 4 두 강 리  
 알 의 수 가 배 도 주 라 .  
 이 의 영 : 알 마 4 알 이 가 배 기 통 리  
 가 배 알 의 수 인 .  
 할 마 4 가 기 무 수 들 라 ?  
 이 의 의 집 의 수 알 마 4 알 인 것 이 사 두  
 알 의 수 알 의 수 나 알 의 수 인 .  
 할 마 4 알 라 보 ? . . . . . < 알 알 라 지 마 > 알 이  
 고 은 이 라 . . . . . 다 알 의 배 리 기

권 가 책 이 사 무 학 노 . 해 고 실 무  
 일 이 는 해 라 가 국 무 면 구 만 이 지 .  
 구 오 활 마 나 가 해 고 실 무 일 이 무 예  
 은 :  
 활 마 나 아 주 가 지 무 음 이 활 오 앓 사 보  
 와 활 일 여 앓 겠 노 . 음 강 르 해  
 기 활 나 자 강 를 작 라 고 한 후 , 그 활  
 부 강 르 활 부 이 별 신 이 고 , 무 재  
 권 부 활 생 앓 생 가 노 말 이 라 . 활  
 활 를 해 가 재 무 마 소 무 활 겠 구 나 .

이 말을 먼저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러  
 하여, 내 감정을 표현할 것 같습니다. 면  
 관할 것입니다.  
 이 말을 먼저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러  
 하여, 내 감정을 표현할 것 같습니다. 면  
 관할 것입니다.  
 이 말을 먼저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러  
 하여, 내 감정을 표현할 것 같습니다. 면  
 관할 것입니다.  
 이 말을 먼저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러  
 하여, 내 감정을 표현할 것 같습니다. 면  
 관할 것입니다.

또 갓 구구. < 만 배 삼 것을 한 손 이 >  
 들고 먼 지 를 부 러 >  
 상 구 와 활 마 나 의 계 항 들 시 키 는 기 아 <  
 부 이 나 가 화 기 활 마 나 시 키 를 어  
 시 운.  
 상 구 나 가 활 마 나 가 활 마 나 가 활 는  
 기 안 야!  
 활 마 나 왔 두 라. 내 가 화 기 활 마 나 <  
 거 라. 부 이 나 부 활 것 왔 라.  
 상 구 그 만 두 시 운. 나 가 활 마 나 라 <

장을 팔아 라 P 장의 일,  
 이 일의 끝은, 양면 부피 산량 구별 시라,  
 가지 량 P 양을 산량도 라 시은.  
 장 구의 일 P 시라 . . . . . 산물 까라!  
 부의 흥! 장관 < 孝線 > 장사. < 魂 > 풀  
 일 수 가 버린 다 >  
 장 관 구 량 부 시 은!  
 팔라 Y 와 . . . . . 기 량 부 구 량 금 장  
 하 주 가 . 나 위 유 일 할 바 기 일  
 이 구 이 .

상 쿤 했 바 지 고 말 보 바 지 고 , 하 마 <sup>나</sup> <  
 자 기 를 가 르 키 며 > 단 생 각 하 면  
 이 집 에 서 누 가 생 각 할 나 까 으,  
 할 와 나 으 누 , 누 많 다. 가 고 으 실 레  
 었 는 이 할 미 생 각 지 말 고 작 발  
 나 <sup>할</sup> 일 이 누 생 각 공 해 라.  
 상 중 누 가 왜 이 ?  
 할 와 나 그 래 , 생 라 다 술 이 누 친 마 시 고 ,  
 철 래 가 라 양 누 가 소 나 들 이 누 들 들  
 고 < 흥 누 > > 흥 흥 이 누 흥 흥 <sup>아</sup> 누

그 기 원 이 끝 아 나. 이 후 아 아 지  
 발 부 리 리 카 이 .  
 상 구 그 전 발 머 나 가 참 견 발 의 관 예  
 유. 아 시 겠 으 유.  
 발 머 나 안 라. 다 발 나 잇 유 나 리 . . . . .  
 그 발 지 마 구 두 아 가 분 발 으 발 아  
 아 발 리 이 .  
 상 구 됐 으 유. < 발 머 나 의 이 비 발 모 >  
 그 발 들 도 가 조 유. 그 리 라 발 이  
 리 두 의 기 나 모 지 다 조 유.

할 때 나 무라구? < 밀라어 가라 말화사 >  
 나 무라갠제?  
 상 쿤 할 때 나 방이 아나 할 아님. 손의  
 이 으면 말한단 말 예님. 아러 나  
 아버지 못 나오 드름 할라라 했  
 의님.  
 할 때 나 < 쓸쓸하러사 > 예미 아버지...  
 상 쿤 과 나 나가 해 부 소리 예님.  
 라 그 말 들의 감사다. 아이 그 우  
 라 할 때 나 착한사다.



할	모	4	<	응	의	순	을	뿌	라	래	고	별	것	이
상	관		<	감	바	를	위	물	고	사	성	거	라	리
상	수		<	안	을	들	아	라	보	며	등	장	하	여
상	관		<	노	라	와	동	작	을	만	추	고	>	말
상	수		와	,	도	을	삼	이	됐	는	말	아	?	

상 한 내 가 암 기 위 람.

상 한 막 의 기 사 나 왔 는 데 요.

상 한 나 화 과 부 수 상 관 이 야.

상 한 단 들 기 함 은 소 관 했 기 ?

상 한 < 비 시 기 원 의 나 마 > 응 접 실 칭

을 랑 해 기 말 랑 과 했 어 .

상 한 그 런 데 왜 ?

상 한 쓸 데 있 는 말 시 키 기 마 . 리 관

하 .

상 한 이 흥 부 르 의 수 만 하 늘 만 바 라

보고 싶었는데 몸이 슬슬 회복했어요.

그것으로 우리 향 나머지 할 야.

상준 노말이야. 인간이란 갖기가 마  
르텐 가아 관라구.

상준 나무 그러지 마. 불쌍하잖아.

상준 불쌍? 불쌍하게 살지 말고 각분  
아름에게로 가면 되잖아.

상준 아버지가 보나 주시나.

상준 아버지로 불러볼까요. 자기 체

면 하나 책상에 붙들고 있으니까

말이야. 그것뿐 아니라 동남이르

라고 있어.

상수도별이?

상수도별을 보시고 있어라고 말씀

한 혼성으로 짜 놓았어.

상수 혼성이란 게 그런 거야. 오빠로

큰아들이니까 할배위 된.

상수 그건 그렇고, 편원일이야?

상수 뭐가?

상수 잠꾸러기 애가 씨게서 아쉽 일

가 등 세 화 왔 으 는 밤 들 이 야 . 한 마  
 는 장 소 리 라 는 화 가 소 신 의 수 문  
 가 천 리 이 편 의 수 , 아 물 로 6 호 전 아  
 밤 은 북 북 (가) 보 각 다 신 시 이 리  
 밤 한 일 야 후 .  
 장 구 형 : 첫 12 시 이 전 이 일 이 나 전  
 전 이 왔 는 이 리 드 령 인 제 전 장 망  
 첫 일 이 시 리 .  
 장 구 수 장 보 클 구 전 이 상 한 할 일 이  
 왔 어 수 대 기 줄 이 야 .

상 순 구 받, 같은 용건 이 구 만.

상 순 옥, 오 들 은 양 보 공 해.

상 순 구 자, 나 가 할 말 인 걸.

상 순 편, 2 만 원 밖 한 달 지 2 저 게 안  
수. 또 장 말 의 리 한 구 나.

상 순 오 받, 어 제 이 리 나 의 게 지 2 만 원  
고 의 나 리 알 았 어. 그 돈 하 루 사 는  
데 다 알 았 어.

상 순 야, 말 마 라. 어 제 밤 은 잘 못 건  
렸 어. < 빈 팔 품 을 보 이 며 > 어 기

까지 물어 주고 30만 원 부록이

있어. 우라 사장 팔아서 물려버린

했기 때문에, 오늘 12시까지 갖다 주길

알고 있으면 사장 찾아간대. 그러니까

내 <sup>사정</sup> 상황이 급해지 않아 응.

상수 참, 칼질계 잘 드 놀아나신다.

상수 그러는 애가 씨계선 ..... 야, 좋

은 수가 있다.

상수 원래?

상수 남북 통일하자.

상 주 심어!

상 주 아나, 왜?

상 주 심랑 말아.

상 주 네, 몽땅 켜 심어 붙여 귀 켜 주시  
다는 신일 물라잉.

상 주 진리 좋아해네. 난 새 기관 해  
고는 험상 무한대 말아.

상 주 뭐, 새기?

상 주 그래. 절라 노만 원 받았을 때  
3만 원 가져갔잖아. 그것으로 목력



전인 아라한 방불이 되리라.

상승하여, 그런 한 다 상각한 후

부잡해사 아라한 사나. 후, <노라

르> "라가서 불지 마시오"

이래 할마나, 날이 많은 자그만

호미를 들고 나으라.

상승하여, 할마나 호미를 들고

가시오.

할마나 (불들은 천 응접할 말을 지닌 간대)

상승 발마라 가시오. 다 네 오시오

상 수 < 활 마 나 앞 음 많 아 사 마 > 활 마 나 <  
 와 이 래 은. 여 기 는 10 라 를 나 가  
 드 들 어 라 관 앞 어 은. 광 어 라 관  
 시 영 트 들 관 들 어 라 관 예 은. 그 관 <  
 들 어 가 사 은.  
 활 마 나 나 가 나 2 들 원 <sup>이래라 저래라</sup> ~~간~~ <sup>안카</sup> 들 이,  
 기 들 활 가 음 의 <sup>음</sup> 바 무 가.  
 상 구 들 영. 활 마 라. 나 가 자 무 그  
 자 들 영 강 노 마 활 세 영 보 인 라.  
 들 모 나 의 그 관 을 아 바 리 가 보

시 면 , 두 가 활 미 는 그 령 기 했 는 그  
 그 의 상 의 발 동 한 다 는 결 단 보  
 르 상 .  
 상 수 활 미 나 다 분 밖 에 나가 시 면 안 피  
 으 . 길 이 라 르 랑 어 버 란 긴 일 은 만  
 만 에 으 . 애 시 갓 르 활 미 나 .  
 활 미 나 보 수 . 나 가 라 캐 르 문 내 간 라 .  
 의 계 ~~하 강 의~~ <sup>이 카 비</sup> 앙 을 ~~이~~ 나 그 들 일 이 나  
 래 라 . 밖 의 나 간 래 그 나 췌 갈 데  
~~가~~ 의 ~~있~~ ~~부~~ . ~~하~~ .

상 손 그 려 봤 어 음.      조 금      있 라 가      아  
                     버 리      나 오 시 기      전 에      들 어 가 아      려  
                     는      네      활 마 니.  
 활 마 니      후 - .      오 부 .      그 래 무 마 .      < 나 가  
                     사      양 상 한      나 무 를      우 두 거 니      보 고 <  
                     찾 는 다 >  
 상 손 < 들 어 사      나 오 는      상 손 에 기 >      너 <  
                     정 발      양 보      목 하 겠 어 ?  
 상 손      그 려 ,      배 곯 라 사      그 만 원      줄 래 ?  
 상 손      그 려 게      주 겠 어 ?

상 승 오 번 얼마 될 수 래?

상 승 3 만 원 줄 것 주고, 2 만 원  $\frac{33}{2}$  은  
있 으 야 되 려겠 어. 안 래?

상 승 그렇, 7 만 원 있 으 야 된 다 는 계  
산 아 누. 재 신 있 어?

상 승 그렇게 줄 래?

상 승 재 신 있 으 면 개별 적 으 르 교섭 하 래  
구.

상 승 좋 아. 어 쨌 든 2 만 원 주 면 되  
는 거 라.

상 순 응, 그 래.

상 른 그 렬, 년 안 에 가 깃 밤 이 나 만  
 지 그 있 어.

상 순 알 았 어, 잘 해 봐. < 안 으 르 들 어  
 간 라 >

상 른 < 흔 자 서 성 거 리 라 하 품 을 몇 번  
 라 라 소 라 에 드 러 누 워 바 린 라 >

할 머 나 < 마 른 나 무 가 지 위 르 하 들 을 현  
 다 보 무 았 는 깃 전 에 사 소 리 가 들  
 여 은 라. 그 라 그 는 구 슬 리 우 는

산 비 들 기 우 는 소 리 가 계 속 해 서  
 들 려 온 라. 그 소 리 를 들 으 고  
 가 앓 아 서, 시 벤 트 바 략 이 남 겨 른  
 나 무 백 리 의 숲 구 멍 같 은 맥 밭 을 흐  
 미 로 각 족 가 관 라. 조 금 뒤 에 각  
 은 아 들 의 발 소 리 가 들 린 라.  
 각 은 아 들  
 들 소 리 어 무 이 예, 모 사 는 우 래 리 내 고  
 앓 는 보 ? 어 무 이 생 각 만 하 면 만  
 이 만 한 불 임 나 라. ~~한~~ ~~만~~ ~~한~~ ~~만~~ ~~한~~ ~~만~~ ~~한~~ ~~만~~ ~~한~~ ~~만~~  
 라 라 가 지 만 나 는 ~~자~~ ~~식~~ ~~자~~ ~~식~~ ~~자~~ ~~식~~ ~~자~~ ~~식~~ ~~자~~ ~~식~~

하고 보이 참 안 리심라. ~~몇 분의~~

~~한~~ 어부의 참아 갈라 캐르 형 남

<sup>내</sup> (나) 의 부 이 풍 아 라 안 캐 사 문 간 라

안 입 끼. 어 지 간 휘 거 든 구 마 고

항 으 르 모 이 소. 송 흥 이 는 솔 이 라

를 북 고 산 라 고, 든 은 댕 어 르 인

정 은 안 앓 을 나 끼.

이 때 <sup>장씨</sup> 라 편 에 사 조 심 스 럽 게 음 강

카 여 주 위 를 살 리 대 가 활 미 나 를

발 견 하 고 약 간 놀 랐 라, 그 라 나



할머님을 쉬모로 향각할라.

강 씨 저..... 실례할라.

할머님 <안아서 쳐다만 본라>

강 씨 저..... 이집에 삼야카?

할머님 <호의를 들은 일어사마> 그러

실러. 우연왔는꼬?

강 씨 새장사방의 계삼야카?

할머님 새장사..... 아예, 앓았러.

강 씨 <머리를 누듯똥하고 아래위를

흔들어 보구사> 일나 나왔는꼬?

활의 ㄴ 양구 가 ㄴ 잇는 감심라. ㄱ가  
 ㄴ도 ㄴ <sup>교주</sup>활 망라기 ㄱ 타가지 ㄴ ㄴ을 ㄴ  
 ㄴ도 ㄴ을 ㄴ 활 활라라 ㄱ ㄴ 잇 ~~ㄴ을 ㄴ~~ ㄴ.  
 장 ㄴ ㄴ, ㄴ라 ㄴ. ㄴ라 ㄴ ㄴ라 ㄴ...  
 활의 ㄴ 활 ㄴ나 ㄴ ㄴ을 ㄴ ㄴ.  
 장 ㄴ ㄴ, ㄴ... ㄴ ㄴ나 ㄴ ㄴ...  
 활의 ㄴ ㄴ라 ㄴ ㄴ을 ㄴ ㄴ. ㄴ ㄴ ㄴ  
 ㄴ ㄴ ㄴ.  
 장 ㄴ ㄴ, ㄴ라 ㄴ.  
 활의 ㄴ ㄴ ㄴ ㄴ. ㄴ ㄴ ㄴ ㄴ ㄴ ㄴ

원 어 누 사 만 나 보 스 기 인 사 안  
인 보.

장 씨 < 만 루 해 따 > 가, 인 사 판 을 귀 키  
가 북 됨 4 라. 저, 닥 은 수 강 담 과  
..... 어 려 게 됨 4 카 9.

할 따 4 < 자 랑 스 럽 기 > 내 손 아 들 임 기.

장 씨 예! < 관 실 가 리 따 > 아 이 구 이 거  
좌 송 함 4 라.

할 따 4 감 락 기 와 이 라 는 기 웃.

장 씨 불 라 뵈 2 팔 레 했 을 4 라. 할 따 4 <

(10x20)



응 사 하 실 시 오 .

관 하 구 기 하 관 하 구 기 하 관 하 구 기 하 관 하 구 기 하

하 배 하 구 하 관 하 구 하 관 하 구 하 관 하 구 하

하 구 하 구 하 구 하 구 하 구 하 구 하 구 하 구 하

하 구 하 구 하 구 하 구 하 구 하 구 하 구 하 구 하

하 구 하 구 하 구 하 구 하 구 하 구 하 구 하 구 하

하 구 하 구 하 구 하 구 하 구 하 구 하 구 하 구 하

하 구 하 구 하 구 하 구 하 구 하 구 하 구 하 구 하

하 구 하 구 하 구 하 구 하 구 하 구 하 구 하 구 하

하 구 하 구 하 구 하 구 하 구 하 구 하 구 하 구 하

할머나 거기 뭐요?

상춘 (벌떡 상반신을 이르켜 지켜본  
다)

강씨 이속에 수면이 잔혀 있었을나.

할머나 그러기 말구 바로 주이소. (안  
을 돌아보며) 상춘아, 손님왔다  
나가부지 깨아라.

강씨 할머나, 그러신나 있었을나. 이  
것만 전해 주시면 될나.

상춘 (레벨라 나와) 레가 전하코.

장 소 ( 영문을 불러 여러 동전 받다 )

상 주 아, 자 말업카? 난 이 집 아 들  
있어 다.

장 소 아, 그 월 습어 카. 안녕 하 왔 을 어 카

상 주 < 손 을 누 민 데 > 재 가 전 하 겠 을  
어 카.

할 미 어 이 님 아!

장 소 네 ?

상 주 왜 은 ?

장 소 아, 아 님 어 카. < 명 투 를 건 너 주 무 >

부족 중 전 해 주 심 시 은. 부 략 합 4

다.

합 의 4 자, 자 . . . . .

상 주 < 흥 투 를 관 의 수 방 각 의 략 지

의 > 전 해 기 만 하 면 <sup>판</sup>의 <sup>문</sup>은 ?

장 소 예, 예.

상 주 원 의 주 시 편 배 민 의 이 전 하 겠 을 4

다 < 들 아 서 유 전 시 의 들 라 간 라 >

장 소 < 전 을 하 마 > 부 략 합 4 다. < 들

아 서 주 가 다 관 의 주 를 보 무 > 관

모 4 안행회 계심시오. 그리고

오래 사소음.

함 모 4 < 상구마 랑씨를 번갈아 보며 >

아이구, ... 후 - <sup>아아</sup> 4개 <sub>아아</sub> 쿵우야기.

장 소 안행회 계심시오 할머니. < 큰집

스럼게 걸어 나가라 >

상 쿵 < 부라나게 봉투를 뜯는지. >

보워치의 10만원 봉투와 5만원

봉투가 나온다. 이랬는지 뎀의

의 봉투, 2만원 봉투와 5만원 봉투



주머니에 넣고, 나머지는 잠바 안

주머니에 넣는다 >

할머니 (그 동안 응접실앞에 와서 상주

이 하는 것을 지켜보오 있다)

상주 아나, 왜 그루구 샀소?

할머니 누 그라면 무슨대. 사람이 그

라문 무슨대이.

상주 할머니가 참견할 일 안예요.

할머니 참견인지 보견 (本解) 인지는 모

르겠라마는 사람이 그라문 무슨대 <

물 수.

상 한 문으로 취직 하려는 목수님 돈

없음

한 마나 일 마나 탐 탐 했 으 문 취 직 할 카 카

는 수 람 이 무 문 문 관 왔 겠 나 .

~~보 아 라 아~~ 2 문 도 ~~부~~ 문 나 왔 을 기

다.

상 주 그 런 건 알 쥘 으 았 으 문 . 아

은 주 수 안 소 그 취 직 하 는 세 상 인

를 안 시 으 . < 탐 가 위 의 이 력 시 를 >

이 부의 형의 사 나 말며 > 이 가 나

양 부의 형의 사 전 한 수 노.

형의 사 부의 형의 사 전 한 수 노

부 가 부 전 해 야 한 노.

상 부 < 심 사 웃 으 며 양 주 의 사 노 >

장 장 리 는 리 리 개 나 의 사 불 부 의

의 사 > 야 - 할 마 나 노 보 통 안

인 리, 흥 정 활 줄 노 양 노, 보 전 가 전

의 구 면. < 두 반 불 부 를 할 마 나 수

의 의 의 주 미 > 불 부 의 노 신 수 노.

불투수 할마나 마우라르 한화노.  
 할마나 마이라, 이질 우장라 말고.  
 상주 할마노 화소트. <응접필의사  
 나래와 안으로 들여가버린라 >  
 할마나 <응접필 마루락에 걸려있어사  
 먼 빛을 바라본다 >  
 이라 고으란 권원음악이 낮게  
 잔라 들낸사 략은아를 부려의대  
 화소라가 들여온다 -  
 손가락 아부기에, 아래준다캣엔 돈주

이 소, 우리들은 학교에 가리나 가

야 할 간,

아 소 풀 리 나 일 은 북 구 해 주 <sup>구마</sup> ~~구마~~, 우리들은

구 타 가 가 라.

소 소 리 아 될 나 라. < 목 이 메 이 며 > 만 남

우 일 우 일 만 가 라 . . . . . 우 래 라 카 등

고. 학교 안 갈 람 나 라.

우 소 리 나 일 은 화 말 르 구 해 주 구 마, 리

판 주 가 두 가 . . . . .

할 러 나 < 들 리 는 수 를 나 리 라 본 라 >

이 법의 제 11조 제 1항 제 1호

제 11조 제 1항 제 1호

제 11조 제 1항 제 1호

이 법의 제 11조 제 1항 제 1호

제 11조 제 1항 제 1호

이 법의 제 11조 제 1항 제 1호

제 11조 제 1항 제 1호

제 11조 제 1항 제 1호

이 법의 제 11조 제 1항 제 1호

제 11조 제 1항 제 1호

제 가 산 북 동 세 한 P 웃 음 4 다.

수 장 드 의 수 마 네 드 랑 이 한 P 웃

음 4 다 10. 수 장 드 한 방 10 신 10

이 음 10.

한 마 4 < 의 수 마 > 관 방 라 오 이 소.

노 드 가 사 북 부 보 갖 이 라.

이 북 만 마 4, 마 직 가 리 구 무 시 나 10.

한 구 4 오 북 이 방 북<sup>이</sup> 마 소 한 방 4 북 4

간 감 신 라.

이 북 만 2 방, 한 마 소 가 아 시 리 마 소 10.

무차별 취사료 인공비인기, 방출  
 취사료의 경우 4개. 한미산, 1개  
 기양을 4개.  
 한미 4 개량기만, 인공 소식이 있나  
 이부분의 의미 2 개량기만, (한미 4  
 의 활용을 감리 2 개량기만  
 와 관련은 유심회 산권 2 개  
 한미 4 < 북보일 것으로 된 2 개  
 개량기 >  
 이부분만 수가 다변경 4 개 한미 2 개



한미 4 < 어전 > 불모 르 마 마라 만 부 영 인 라 >

이 북 만 함 마 수, 그 것 불 보 여 구 시 것 음

4 가 9

한미 4 < 함 전 > 음 무 라 시 사 수 지 만 부 라 >

이 북 만 < 함 전 > 무 지 음 상 각 각 > 어 이 가 >

함 마 수 르, 장 장 이 그 라 시 라 권 권 각 >

함 함 음 함 시 지. 어 각 수 같 은 사

함 오 리 함 가 어 라 어 수 그 리 함 4 가 >

가 가 함 가 가 함 가 가 수 함 가 가 >

가 이 가 4 가 음.

할 때 나 카이 나 , 그 기 무 수 말 의 의 .

이 들 만 < 지 감 을 가 나 수 감 을 불 아 사

나 민 마 > 활 여 성 , 불 어 심 시 인 .

마 안 영 나 라 만 무 수 은 조 심 사 의

아 프 성 의 게 응 공 탈 라 기 로 가 불 시

라 물 것 아 나 갓 무 나 가 .

할 때 나 < 무 민 결 영 무 수 은 조 강 이 124 >

안 된 라 . 나 가 의 당 신 부 을 불

심 나 까 . 이 라 무 상 원 나 라 .

이 들 만 앓 라 , 그 라 심 것 앓 음 나 라 은 .

한글 맞춤법 < 로마자 표기법 >

한글 맞춤법, 로마자 표기법.

한글 맞춤법 < 로마자 표기법 >의 목적은

한글 맞춤법 < 로마자 표기법 >의 목적은

한글 맞춤법 < 로마자 표기법 >의 목적은

한글 맞춤법 < 로마자 표기법 >의 목적은

한글 맞춤법 < 로마자 표기법 >의 목적은

한글 맞춤법 < 로마자 표기법 >의 목적은

한글 맞춤법 < 로마자 표기법 >의 목적은

한글 맞춤법 < 로마자 표기법 >의 목적은

발	모	4		2	가	사		원		무	사		<del>사</del>	<del>사</del>	사	9			
이	사	사		<	가	사		안	사	사	4	소	의	사	사				
				사	사	사		>		소	사	소	안	사	사				
				의	사	4	사	9		사		사	사	사	9				
				이	사			사		의	소	사	사	사	사				
				원	사			사		이	사	사	사	사	사				
				사	사			사		이	사	사	사	사	사				
				사	사			사		이	사	사	사	사	사				
				사	사			사		이	사	사	사	사	사				
				사	사			사		이	사	사	사	사	사				
				사	사			사		이	사	사	사	사	사				
				사	사			사		이	사	사	사	사	사				

있을 것이다. 앞으로는, 더 권하신다

할 것이다.

앞으로 < 후진 운동 > 그 운동의 ... . . . .

이 운동은 앞으로는 막히지 않을 것이다. 기왕이

면 이 운동의 결과는 상당한 것이 될 것이다.

앞 시가라고 하면, 앞 운동의 결과

있을 것이다.

앞으로 < 양산의 운동은 모두는 물론이거니와 >

이 운동은 그러할 수 있을 것이요, 앞으로는 <

시가라고 시가 운동을 하면, 앞으로는

#13

-32

No.

52

20

		나	한	안	데	시	가	보	시	은	손	래	였	
		부	나	나	은	의		그	한	남	나	라	은	
		말		아	는	의	계	시	은		<	들	아	
		가	라	되	들	아	보	고	함	실	라	며	>	
		락	함	나	나	은	함	마	신		<	들	아	
		간	가											
		말	며	나		<	그	라	르	말	라	나	>	
												<	사이	>
		아	들	밖	사	강	가	호	밖	함	은	르	응	전
		실	에	나	와	기	리	가	를	켜	며	신	무	를
		찾	다	가	말	며	나	를	의	아	스	레	바	라

(10×20)

태가 손에 쓴 것을 가르키며 >

그제 뭘 야카?

한마 < 아들을 한참 혀다보라 > 으나

뭘이 손님이 와서, 누님이 남거든 <

구라 캐더라.

방사랑 < 그것을 받아 돈을 한손에 뭘

적 쥘채 봉투를 < 보라 > 혀 <

이 친구가 < 식 옷 무막 수포를 <

루 받고, 다른 봉투의 수 < 아랫수 <

짜나 < 혹 불어 옷을 살라 <

이 력사 뿐 안야. < 봉투가 뜯긴  
것을 확인 해라 > 이 봉투 누가  
뜯었음 니 카?

판타 니 < 그동안 애들의 란도 깃털 지  
켜 보라 왔 라 가 > 그 전, .....

방사 강 니가 뜯었 니고 묻고 있 질 양 습  
니 카.

판타 니 < 무슨 말 을 해 라 라 참 니 라 >

방사 강 이 봉투 속 의 조 준 이 있 었 조 ?

판타 니 그 래, 있 었 다.



방수강 인마였을 수 카?

할머나 볼라. 나부 오를라.

방수강 부인 있었는래, 언마였는리 는 보

부강 딸있 수 카?

할머나 그강대 캐드.

방수강 (주에 돈을 보이며) 이돈은

왜걸 수 카?

할머나 그 부라카고 있노?

방수강 이게 무슨 돈이냐 말에?

할머나 무슨 돈이지 나가 부재 아노.

안팎을라 개는레 자꾸 말기라라.

밖사람이 봉투에사 나쁜 물양제일.

그중 일부분은 다나부고있어?

밖머나 안이라. 안이라 안가나.

밖사람그런, 이쪽에서부터를가르내  
갔다올나카?

밖머나 거기는, (복합고) 구멍두가  
구멍도아라.

밖사람그말두라나있어?

밖머나 그사람, 일부분시키부오라.

사람 부끄러워 피라라.

반사장 사람일 줄과 안쓰고서 나가 임

아사 할 일이 예울. 그리고 도마

나, 양새이 날은 칼로 세게 할수한

사은.

할로 나 야야, 나가 새이 무를 날은가 갔노

산 배 날은 뜻도 이. 무를이로 무

나가 나 두안로 새이 갖이 무하

갔노 물이 라.

반사장 구재, 이 날은 무를이



1. 다음 네 가지, 아 네 편 주 보 신 상 이 하  
 2. 다음 네 가지, 부 네 가 배 보 아 르 생 단  
 3. 임 임 네 가.  
 4. 한 모 네 < 한 보 이 구 자 앞 아 > 구 기 안 이  
 5. 라 안 카 나. 아 아, 구 보 한 아 라  
 6. 이 오 미 가 잘 보 했 다 이.  
 7. 한 수 강 전 을 아 모 네 등 을 편 오 했 음 네 부  
 8. 위 한 안 신 구 가 아 네 배 수 상 수  
 9. 한 배 이 구 배 한 이 구 했 오 노.  
 10. 구 한 기 한 아 리 오 모 한 등 에 구 한 신

양이 아닌데, 그런 사람이 될 수

없다고 믿어 왔을 때. 사업이라

고 하라고도 하려도 할 수 없겠

도 했을 때. 그런 사람이 되

는데 어찌 했을 때. 건 그걸

만 어찌 하든 다 하기가 부끄러웠을

다. 제 의지, 돈의 어려움지 않은

아닌데, 어려움은 두 가지가

제 인내력과 그것을 극복할

자랑이 아니라. 그러

우도 또한 조 조 생의 상계시 면 전

말 수 은 불기 신 의 피 P 말 Y 라.

우도 또한 불기 은 구 광 명 의 사 의 수 라

우도 또한 불기 불 불 광 P 불 의 수 라

우도 또한 불기 불 불 광 P 불 의 수 라. 구 권 리,

우도 또한 불기 불 불 광 P 불 불 구 있

우도 또한 불기 불 불 광 P 불 불 구 있

우도 또한 불기 불 불 광 P 불 불 구 있

우도 또한 불기 불 불 광 P 불 불 구 있

우도 또한 불기 불 불 광 P 불 불 구 있

다. 마음대로 하세요. 그 향으로  
 가르치, 방신아를 곁으로 가르치  
 마음대로 할 것 !! < 책 들  
 아사 상사 권유으로 안으로 들  
 가버린라 >  
 할모나 < 반란 및 나의 아들의 뒤모습을 <  
 바라보며 > 야야 - . 나가와이러  
 카노. < 흐느끼며 > 나가와이러  
 카노 응이 < 흐느끼며 > < 수이 >  
 이라 좌편 바깥에서 " 할모나 " 를 <



부르짖소      외 외 외      당숙의      소리

들린다.

할머니 <마리      다름을      알리다      >      꾸민 <

바라본다 >

상속 <뒤 외      배 외 남수 >      할머니 !      <엄

소      양자수 >      할머니 ,      들린다      <엄

우음 ?

할머니 < >      < >      < >      < >      < >      < >

가      나      < >      ,      나      < >      < >      < >

상      < >      < >      .      < >      < >      < >

안 이 오 누 가 우 략 살 겠 노 .

상 속 < 일 의 수 활 모 나 의 활 을 략 >

활 모 나 략 일 의 수 노 .

활 모 나 략 , 무 수 일 의 수 노

상 속 러 , ~~부~~ 흥 , 활 모 나 략 활 모 나 략

친 구 들 이 와 노 . 내 친 구 들 이 사

단 활 모 노 .

활 모 나 야 가 무 략 카 노 .

상 속 활 모 나 략 이 의 르 우 신 노 인 니 들 을

차 례 를 들 겁 지 하 무 략 노 와 아 리

2

세월이 흐르면 강이 흐르듯

살아가는 인생이 그렇듯 흘러간다.

그러나 강이 흘러갈 때, 돌이 있으면

흐려지지 않나?

강은 돌이 있으면 돌이 되어 버리고 마아라...

강, 강이 흐르면... 강이 흐르면...

강이 흐르면...

강이 흐르면 강이 되어 버리고 마아라

강이 흐르면 강이 되어 버리고 마아라

강이 흐르면 강이 되어 버리고 마아라

상 숙 그 날 일을 보게 우리 집 의 서 받  
 단 밖 의 눈 ( 밖 의 나 들 이 큰 까 소 무  
 마 > 자 자 이 큰 나 소 눈. 옷 가  
 라 짐 은 야 래 눈.  
 밖 의 나 바 라 아 아, 무 른 감 로 위 의 감 의  
 무 무 라 캬 눈 지, 시 상 의 이 기 무 는  
 나 또 밖 이 나.  
 상 숙 아 이, 시 간 앞 의 눈. 아 이 들 이 는  
 나 있 단 밖 의 눈. 그 리 구 아 받 받  
 띠, 무 라 밖 의 나 들 감 받았 을 때 의 받

유 유 한 미 한 , 화 하 이 이 사 오 라  
 수 했 감 이 들 비 라 그 단 각 량 을 책  
 준 들 모 양 .  
 해 모 4 유 양 유 한 이 , 화 하 이 , 인 들 거 구  
 노 각 량 을 그 마 을 했 노 . 노 보  
 영 아 기 가 ?  
 상 수 유 모 . . . . . 것 량 사 사 바 바 지 것 사 .  
 할 모 4 !  
 할 모 4 와 ?  
 상 수 유 한 은 의 한 인 두 가 소 양 부 자 서

거고요, 하와이도 미국과 같은 나라이  
 구, 이벨리도 기성인의 관음도.  
 할머나 야가 와 이라가노. 늦잠과 기  
 의라로 보루는 이 할미가, 미구  
 유학이 다 부교. 영모웠는 소리  
 대강리라.  
 삼속 다분 아플 불모나 세은 일선, 피  
 랑스, 이탈리아의 산영은 리슬우  
 영은 영부리사 이리세 바렸던 할  
 모나 세이리라 영모웠는 리, 우리 불모나 가

1. 수양을 행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2.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렸다.  
 3.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버려졌다.  
 4.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버려졌다.  
 5.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버려졌다.  
 6.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버려졌다.  
 7.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버려졌다.  
 8.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버려졌다.  
 9.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버려졌다.  
 10.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버려졌다.

가 양 양 마 시 가 나 시 키 는 래 로 램

하 수 은 네, 활 머 나.

활 머 나 < 관 관 상 각 각 > 오 수, 오 오 수

나 만 종 각 가 부 시 키 는 래 로 램 구 마

오 수 나 새 기 예.

상 수 < 활 머 나 른 바 라 보 라 양 간 비 관

우 소 리 로 > 활 머 나 나 마 와 은. 나

활 머 나 말 장 늘 을 계.

활 머 나 < 상 수 의 두 수 을 램 > 나 램

나<sup>✓</sup> 아 인 모 이 일 인 수 나 가 우 램 수



했노.

상속자 범의가음, 할머나, 만 상속

망의 제 시 키 는 다 로 받 관 소 의

네, 아 시 겠 요.

할머나 오 나, 할머가 이 라<sup>부</sup>도 노 누 레 누

관 가 락 있 레 이.

상속의 등 을 스 라 받 으 면 사 안 분

은 받 을 어 간 라.

정 리 무 락. 그 라 를 주 겠 으 나

가 좌 권 의 사 상속의 권 주 A B C

과 재 상 관 를 를 2 등 장 관 다.

친구 A < 응 접 된 불 의 서 > 속 아 - . 위  
상 속 아 - .

친구 B 10 응 9 의 장 아 .

친구 C 아 들 아 , 우리 함 향 으 르 한 번 구  
게 불 리 보 자 구 나 .

친구 A. B 좋 아 .

친구 C 상 속 아 라 . 시 이 각 .

친구 A B C 사 앙 속 아 - .

상 소 속 라 < 말 에 서 > 그 라 문 나 간 다 .

친구 B 자 을 라 가 자.

친구 A 모 두 자 리 갈 아 냐 아.

- 모 두 응 점 실 위 을 라 가 지 각 자 -

나 음 대 로 활 려 분 라 -

친구 A 아 - 근 사 라 자.

“ B 뭐 , 대 강 알 겠 라.

“ 2 뭐 리 는 을 라 르 생 기 가 았 장 아.

이 래 , 빛 갈 진 령 활 령 관 웃 리 스 에

안 경 까 지 볼 진 활 더 나 른 상 속 이

정 충 화 게 모 시 나 나 운 라.

친구 A 야 - 할머니 이 시 라. 박수 -.

- 브루 박수를 친 라. -

상 국 < 가 우 레 개 지 할머니 를 보 시 고

나 와 시 > 여 러 분, 나 가 제 일 관 경

할 뻔 아 니 라 날 제 일 사 랑 과

주 시 는 우 리 할머 니 시 라.

- 친구 를 "할머 니 부 라 보" 하 "친 수

조 박 수 를 친 라. -

할머 니 < 여 라 등 절 해 시 어 잘 를 보 룬 다 >

친구 A 모두 를 찬 췌! 에 - 나 가 모두

를 대신해서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차  
 렷, 경례 —. < 모두 구령에 따라  
 행을 한다 > 할머나, 안녕하십니까.  
 우리들은 할아버님께 수고라 수고라 사  
 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삼시삼  
 안을 거당 할이 똥안에서 할아버  
 구름을 의 못함으로 지켜주시기를  
 할 바라도 바입니다.

할머나 < 의절을 불러 상복을 부라 >

상복 < 할머나 구령에 따라 무는 상복을

(10x20)

속 인 라 >

할머 나 러 ... 오 나 고 맴 라. < 말 이 막

해 서 상 속 을 본 라 >

상 속 < 좌 귀 의 속 속 인 라 >

할머 나 참 말 르 기 특 드 해 라. 러 .....

상 속 애 들 아, 우 라 할머 니 < 귀 를 가 르

기 러 > 이 게 좀 아 득 해 서 그 라.

모 두 를 앓 아 라.

친 + B 할머 나 부 생 앓 10 조 10.

할머 나 - - - - -

상속 불모나, 사망이 없음. < 모친사 이가

에 대한 것 >

친구 < < 가족 당부를 불러서 상속권 위임

권한 부여 > 원할 때, 할 때에 관계

가액 부과를 각각.

친구 < < 상속권 각 가를 할 때나 임의

권한 > 할 때나 이가 상속권인

대오라 상속이.

할 때나 이익과 상속권, 또는 상속인

라.

친구 C 제가 부러진 심의 예은. 재 받  
은 예은.

할머니 < 나미는 손을 두손으로 잡으려 >  
아이구 손으로 ~~잡~~ 이쁘구나.

친구 C 할머니 나미 위은. < 불러 나미라 >

친구 B 할머니, 이걸 잡수시고 좋은 씨  
상으라 사세요.

할머니 < 한 손으로 밥으려 > 으우. 그  
말제이. 그러 몇잔이제!

친구 B 몇몇 살이 예은.



할머님 4 부부님은 잘 있었어요.

친구 2 명, 할머니 1. < 물라 누르라 >

친구 4 할머니 4, 제 것으로요.

할머님 4 < 양산의 마차들 받쳐들고 > 또

말은 라 말가?

친구 4 제 것으로 말은 있어요.

할머님 4 그라, 이 우리라 있었어라.

친구 4 < 마차들 있었어요 > 할머니 4 그라

그라 수요일.

할머님 4 그라 볼모라가 모라살라 캐서이

내가 쓴 말이 너 다 알아야 내가 할

원래 두 피켓도?

친구 A 아 - 유우머 한번 보았잖.

- 모두들 "아 -" 하며 수줍음을 권하-

할머니 야들야, 너는 양각 자 쌍을 사

아 갖게 이. 내가 쓴 이 는 쌍의 물

우카 우이.

- "이" 라고 는 마음대로 재질라라

라자를 만드라나 -.

할머니 < 양산이 걸려 쌍을 라자를 사

라 할 방도가 있어 수 관관한 데, 꼭  
 등의 안결이 불러내라기 시작한다.  
 온갖 상을 지푸라사 일으키고  
 을 리라 하나 뜻대로 되지 않는다.  
 과자가 벗어난 두 손으로 안경을 쓸  
 리라라가 마자를 찌러쓰리고, 그것  
 을 주우려라가 안경마저 떨어뜨린  
 다. 불이 난데 안경을 주어 주고  
 마자를 훔쳐가도 안경을 훔치고  
 거기라 아이들에게 돌팔가 봐라

가	리	를	살	려	이	라	나	와	나	필	사	적	인	노
력	이	아	나	수	있	라	고							
상	속	고	수	지	를	차	고	훈	자	속	태	무	라	가
말	어	진	바	라	를	말	로	된	나	사	의	라		
말	으	로	남	이	라	는	시	능	을	한	라	고		
말	어	나	고	알	았	라	고	고	라	를	가	라	면	이
시	킨	라	로	한	라	고								
상	속	고	만	경	을	바	르	라	고	은	것	하	게	말
있	으	라	는	시	능	을	한	라	고					
말	어	나	고	라	로	한	라	고						

친 + A 애를 아, 활의 편 줄편게 라 드릴  
 노래를 같이 부르자. 국악을 <  
 구항의 불 > 이라. < 노래를 > 나  
 의 물건 구항은 시각.  
 - 모두 노래를 부르다 -  
 상 속 < 손뼉을 치라는 대안을 보낸다 >  
 활의 4 < 멋모르니 손뼉을 친다. 노래  
 노래는 활을 활의 지 2 가락만이  
 활러온다. 활하 4 활상 활 활러보  
 P 활상 2 >

친구 A 할머니, 노래 할 수 부르시요.

할머니 응이! 노래 못하겠어요?

친구 A 제발 할머니를 위해서 노래를  
부르셨어요, 할머니도 부르셔야요.

자 할머니 노래 배우세요.

— 보루 "야—" 할머니를 부르세요.

할머니 <멍하게 상수를 본다—

상수 <손을 비비며 부끄러워한다—

할머니 <말을 나누는 듯 씩씩한 미소를 띠고—

— 해를 "야—" 하며 계속 부르세요.

활로 나 위게 라이 트 읽 중. < 구 향 의 <  
 불 > 의 내 코 가 사 게 같 리 될 수 신  
 비 들 기 의 열 위 소리 \* , 지 기 의 " 와 <  
 두 도 수 됐 으 는 . 어 머 나 만 지 그  
 의 라 용 권 의 < 포 소 를 갖 나 말 이 영 는  
 " . < 우 데 — > 길 게 변 리 는 수 열  
 소리 . " 어 무 이 예 , 어 지 간 갖 거 문  
 구 마 구 향 으 루 오 이 소 . 송 흥 이 는 <  
 술 이 라 라 를 부 구 산 라 , 돈 문 두  
 어 로 인 정 는 안 앓 음 나 개 " . " 마 지

따로 하세요. 그 할은 곧 가쁘리,

병신 자식 결은 곧 가쁘리 만유과르

화시랑 말이 예은!! 이런 소리 들

의 정신을 빼앗기어, 갓주권지 할

양인지를 부간할 수 없이 부유의

노라를 부르라

식란 백란 타누제

엔기란 몽몽 누구응

이네가슴 타누레는

엔기르 질르 안나네.



< 두 사 오 소 사 불 이 두 는 는 불 라 나  
 권 라. 의 유 는 불 앙 소 상 이 는 불  
 어 가 라 ) 아 아 아 —. 애 비 아 아 —  
 — 무 라 불 아 리 라 —

상 속 < 북 메 인 소 리 르 > 활 러 나 — < 의  
 지 마 려 의 불 어 간 라 )  
 — 갈 람 권 북 조 가 놀 아 리 라. 아 이  
 불 마 리 권 불 이 2 흐 는 기 는 레  
 사 사 리 갖 이 나 리 라. "라"

< 22년도 작품 개작 > 84. 10

(10×20)

84. 10 < 嶺南文學 > 8 輯에 所載

No. \_\_\_\_\_


(10×20)

